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면접구술시험

학생부종합전형[국제형]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사람들은 여전히 열심히 무리를 짓는다. 모임을 만들고, 시시때때로 연락하고, 시간을 쪼개어 약속을 잡는다. 휴대 전화가 울리지 않는 날에는 우울해지고 나만 빼놓고 저희끼리 만나고 있을까 봐 걱정한다. 식당에 들어가 혼자 밥을 먹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길로 쳐다볼까 봐 차라리 굶기를 택하고, 결혼사진을 찍을 때 배경이 되어 줄 친구들이 없는 게 부끄러워 대행 서비스를 통해 하객을 사기도 한다. 인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요, 사회생활에서는 인간관계가 곧 재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더 조급해진다.

그런 이들은 ‘홀로 있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자유로운 일인지를 알지 못한다. 혼자만이 만끽할 수 있는 기쁨과 풍요로운 삶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다. 동행 없이 홀로 산책을 하면 남의 보폭에 나를 맞추는 필요가 없다. 쇼핑할 때 혼자라면 타인의 취향을 강요당할 염려가 없으니 유행보다 개성을 따를 수 있다.

[나] Loneliness can make us less able to get beyond even the normal disruptions and mistakes of day-to-day life. The inability to let go of such events has, in turn, consequences that are not just psychological but physical: Loneliness creates a subtle but persistent difference in cardiovascular* function that sets the stage for trouble later in life. This finding, combined with the fact that loneliness can persist and remain stable through the years, means that its negative effects on health, even the subtle ones, have plenty of time to accumulate and compound.

For young people, loneliness is not associated with apparently unhealthy behaviors. Among young adults, in fact, alcohol consumption—at least as represented by social drinking—is actually less of a problem among those who are lonely than among who feel socially connected. By middle age, however, lonely adults consume more alcohol and engage in less vigorous exercise than those who are not lonely. Their diet is higher in fat. They sleep just as much as the nonlonely, but their sleep is less efficient and less restorative. They report feeling more tired in the daytime.

* cardiovascular: 심장혈관의

[다]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남은 본인의 저서 『나홀로 볼링』에서 미국 사회의 사회 자본이 쇠퇴하는 현상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단체 활동 분야에서 사람들의 참여율이 떨어졌다. 공적인 부분에서든 사적인 부분에서든 남과 어울려 무엇인가를 하는 활동들이 수치적으로 뚜렷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타인과 어울리는 일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혼자 볼링 치기’이다. 퍼트남은 이것을 미국 사회에서 개인화가 심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포착했다. 퍼트남은 이처럼 사회 공동체가 해체되고, 혼자 놀기를 즐기게 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과 의미 등을 분석하면서 사회 자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가 강조한 사회 자본이란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에서 발생하는 사회 관계망,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과 같은 개념이다. 그에 따르면 사회 자본이 줄어든 사회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반면, 사람들의 사회적 참여가 늘어 사회 자본이 살아나게 된 사회는 공동체가 살아나고 공공의 선이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문제 1> 사회적 관계에 관하여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관점을 비교하십시오. (40점)

<문제 2>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를 분석하십시오. (60점)